5·18특별법 1년…조사위 출범은 '감감'

국회 개정안 심사소위 기약없이 연기…진상규명 신청 기한 만료
한국당 위원 추천 안해…"민간에서라도 조사 먼저 시작" 목소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기약이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 기한도 종료되면서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발포 명령자·헬기사격·행방불명자 등 39년간 감춰졌던 5·18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5·18 피해자를 '괴물'로 몰아세운 망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진실 왜곡도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5·18진상규명법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됐다. 하지만 법에 의해 꾸려질 5·18조사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자격을 미달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현재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여·야는 조사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적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개정안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됐다.

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5·18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자동 만료됐다.

5·18진상규명법 제23조에서는 피해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위 출범을 대비해 지난해 12월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대료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공사 빌딩 2층과 서울시 중구 저동빌딩 2개층을 임차했으며,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달 광주 800만원, 서울 1억원 등 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부진한 조사위 출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라도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5·18 진상규명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추천된 인사로 일단 조사위를 출범시킨 뒤 한국당 위원을 추가 합류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루빨리 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1년을 맞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고, 가장 큰 걱정은 5·18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조사위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5·18 왜곡이나 망언이 끊이지 않는다면, 축제 분위기로 추진할 예정인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클럽붕괴 사고 피의자 전원 검찰 송치

공동대표 2명 등 11명

36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34)를 낸 광주 클럽붕괴 사건의 피의자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업주 A(44)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광주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클럽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한 전·현직 업주 3명과 직원 2명, 안전점검업체 직원 2명, 전 건물관리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불법 증축업자 B(37)씨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을 대상으로 클럽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8명이 포함된 사실이 외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습절도범 잡고 보니…은신처는 고가도로 환풍시설

고가도로 아래 환풍구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셀프세차장과 주유소 등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께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광주시 광산구와 서구 일대 셀프세차장과 슈퍼, 주유소,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현금 등 총 424만여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4월께 출소한 김씨는 심야시간대 관리인이 없는 셀프세차장 등에서 드라이버와 지렛대를 이용해 동전교환기를 훼손하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일대 주거형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가 생활용품 등을 훔쳤다.

김씨는 그동안 광산구의 한 고가도로 환풍 시설 안에 거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 14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현금을 훔치고 나오는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학교 과학실서 유독물질 누출…인명피해 없어

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나주시 세지면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실험용 포르말린이 담긴 2ℓ짜리 유리병이 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과학실 안에 교사나 학생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담당 교사가 과학실에 들어가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보호장구 착용하고 부직포 등을 사용해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등 1차 방제 작업을 마쳤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유독 증기를 배출시키는 등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연휴 쓰레기 많기도 많네 16일 쓰레기수거업체 직원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추석 연휴 기간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무등록 보트서 낚시 3명 적발

완도해경은 16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등록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60대 남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제모(63)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남서쪽 500m 해상에서 0.45t 무등록 콤비보트 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올해 총 2건의 벌금형과 15건의 과태료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적발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7명 탄 어선 표류하다 구조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7명이 탄 99t급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 40분께 제주시 추자도 북서쪽 13km 해상에서 삼천포선적 99t급 근해 채낚기 어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선원을 모두 구조하고 A호를 진도군 죽도 인근 해상까지 예인했다.

A호는 15일 밤 10시 30분께 조업을 마치고 항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발생하는 기관 고장 선박은 주위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근 항해 선박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국제결혼 중개하고 수수료 챙긴 무등록 업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1단독 (판사 김지후)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남에서 거주하는 B씨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1254만원의 수수료와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하느님이 청소하라 해서…" 교회 나무에 불지른 50대

쌍나팔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진 50대가 철창행.

○…16일 전북 익산경찰에따르면 A(50)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교회 앞마당 나무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졌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

○…A씨는 이날 교회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나무 아래 모아 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경찰에서 "하느님이 교회를 청소하라고 해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도덕동(삼도) 대로접 2종주거지 534㎡ 투자에 좋음 8억2천 시유지 백여평도 사용함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11607㎡ 투자에 좋음 농협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펜션적합 건평 269㎡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접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가치 양호 16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6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산 944-0444